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직·창업과 금융
- 이슈분석**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소비·유통 시장의 변화
- 금융경영브리프** 경쟁 심화에 직면한 은행 결제 서비스 전략
美 대선 앞, 희비 교차하는 엑스모빌과 NextEra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수익률곡선 스티프닝을 우려한 2년물 발행
외 환: 先반영된 Blue-wave, 원화 추가 강세는 제한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
연구원 조재범(bum123123)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직·창업과 금융
- 04 **이슈분석**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소비·유통 시장의 변화
- 08 **금융경영브리프** 경쟁 심화에 직면한 은행 결제 서비스 전략
美 대선 앞, 희비 교차하는 엑스모빌과 NextEra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수익률곡선 스티프닝을 우려한 2년물 발행
외 환: 先반영된 Blue-wave, 원화 추가 강세는 제한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직·창업과 금융*

조 용 대 경희사이버대학교 금융부동산학부 교수(yongdjo@khcu.ac.kr)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취직에 성공하고 만족할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혁신의 물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창직·창업에 희망이 있다.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도 자금을 모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사업가들이 온라인을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crowd-sourced fundraising)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이것은 대중의 힘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특히 소자본으로 창업과 창직에 도전하는 싱글이코노미스트들에게 또 하나의 성공적인 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도전

인류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은 생산에 관한 혁명적 변화 및 발전뿐만 아니라 소비와 유통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획기적 영향을 통해 인간 삶의 수준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시켰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1·2·3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이 더욱 고도로 발전된 모습의 핵심기술들로 재탄생하고 이 기술들의 융합이 현실적으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융합혁신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1·2·3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융합이 현실적으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융합혁신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딥러닝(Deep Learning), 3D 프린팅(3D Printing),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생체인터넷(IoB: Internet of Biometrics/Biosignal),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생명공학(BT: Bio Technology),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로봇공학(RT: Robot Technology), 자율주행(AD: Autonomous Driving), 웨어러블(Wearable),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의 융합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실감이 나는 듯하다.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에 한편 아찔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혹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혁신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당황스럽고 낯선 시대를 대하는 태도로 진정한 의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반면, 바이오 기반에 따른 인간의 의식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기술을 중심으로 다가올 5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주장이 옳든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저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에 따른 기회에 도전하고 또 다른 혁신을 선도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창의·창직·창업의 시대

혁신의 물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창직·창업에 희망적

시장경제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특징을 보이는 시대를 뉴노멀(New Normal)시대라고 한다. 어찌 보면 새로운 비정상(New Abnormal)시대인 것 같기도 하다. 이처럼 과거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 저성장의 늪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자조적 신조어가 낯설지도 않다. 그러나 이렇게 낙담만 하고 있다고 실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부나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나타났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취직에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기존의 일자리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도전과 노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고 있다. 혁신의 물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창직·창업에 희망이 있다. 따라서 우리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구직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스스로가 창업과 창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창직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무나 직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도전적인 기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창업은 기존에 있던 직업이나 직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조직적 시스템을 갖춘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창직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창업과 창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창직은 푸드디렉터, 산림치유지도사, 반려동물조

련사 등과 같이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나 조직체의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창업에 비하여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과 창직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창직의 경우 보다 소규모로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

❧ 소자본 창직·창업과 금융

물론 성공적인 창업 또는 창직은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의 한 축은 금융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창업이나 창직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햇살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창업기획자(accelerator)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를 통하여 시설, 공간 등의 하드웨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업과 창직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Unicorn)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특징짓는 키워드인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의 지식이 모이면 소수 전문가들의 지식보다 더 우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중의 힘을 중요시한다. 금융의 경우에도 개인들의 자금을 모으면 큰 자금이 될 수 있다.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도 자금을 모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업가들이 온라인을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crowd-sourced fundraising)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이것은 대중의 힘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특히 소자본으로 창업과 창직에 도전하는 싱글이코노미스트들에게 또 하나의 성공적인 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의 힘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소자본 창직·창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창구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소비·유통 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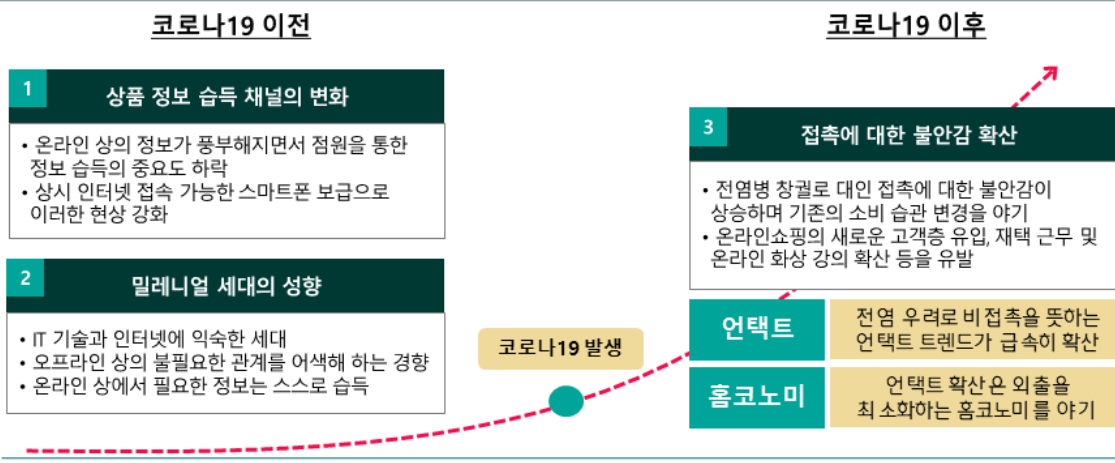
김 문 태 수석연구원(kmt@hanafn.com)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 트렌드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서비스 소비는 위축되고 생필품 소비는 증가하였다. 또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면세점, 백화점이 침체를 보인 반면 접촉 우려가 적은 온라인 및 근거리 점포는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언택트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라이브커머스), 매장(무인화), 배송(퀵커머스), 유통(DTC)이 변화하고 있다. 언택트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및 지역 기반 강화, 새로운 고객 관계 형성, 차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기피로 인해 ‘언택트’가 주요 트렌드로 부상

-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언택트’(Untact)는 contact(접촉)과 부정을 뜻하는 un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비대면, 비접촉 트렌드를 지칭
- 코로나19 이전부터 언택트(Untact)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 기회 증가, 주요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 등으로 이미 태동한 상황
 - 점원을 대신하는 온라인 상품 정보 습득은 스마트폰 일상화로 더욱 강화됨
 - 밀레니얼 세대(20~30대)는 불필요한 오프라인 관계를 회피하는 성향을 보임
- 언택트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소비자 거부감이 최근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완화되면서 소비 품목, 시장 구조 등을 변화시키는 주요 소비 트렌드로 부상
 - 또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택트 행위는 집 안에서 근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는 홈코노미(home과 economy의 합성어) 현상을 야기

■ 코로나19와 언택트 트렌드의 확산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서비스 소비가 위축되고 생필품 위주의 상품 소비는 증가

- 언택트 트렌드 하에서 외출 자제, 외식의 내식화 등이 나타나면서 문화, 여행,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지출은 감소
 - '20년 2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서비스 분야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9.8%)
- 상품 분야에서는 의류, 통신장비 부진에도 생활필수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및 연료를 제외한 일반상품 소비지출이 2020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
 - 자동차 및 연료 포함 시 '20년 2분기 상품 지출은 증가(+19.6%)
 - 이에 따라 면세점을 제외한 일반 내수 소매유통업(자동차/연료 제외)의 판매액은 7월 누적 기준으로 0.6%(YoY) 성장하면서 코로나 시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임
- 품목별 판매액 또한 가전제품, 가구, 음식료품 등 홈코노미 관련 상품들은 호조를 보인 반면에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외출 관련 상품은 크게 침체
 -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용품 판매액 또한 7월 누적 전년동기대비 증가(+8.8%)

■ 유통 업체별로는 다중집합시설 및 비생필품 위주의 면세점과 백화점이 부진한 반면 온라인, 근거리 점포 등 언택트 관련 업태가 양호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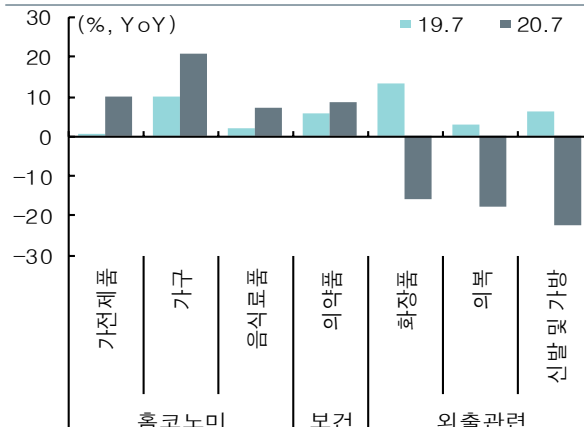
-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이면서 비생필품(의류, 화장품) 위주의 상품 구성을 보이는 면세점, 백화점 업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특히 해외입출국 침체로 면세점은 단일 유통 업태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 기록
-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 대면 우려가 적은 근거리 중소형 매장의 경우, 지역 기반의 언택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기록
 - 특히 음식료, 생활용품 등 생필품이 주요 판매 품목인 슈퍼마켓은 코로나 이전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근거리 생필품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세 전환

■ 2020년 2분기 가계소비지출 동향(상품 vs 서비스)

상품	20.2Q	YoY	서비스	20.2Q	YoY
	지출(천원)	증감률(%)		지출(천원)	증감률(%)
자동차/연료	278	46.3	주거/수도/광열	299	6.9
보건용품	90	28.6	통신서비스	114	-1.7
음식료	454	20.1	보건서비스	143	-3.4
가정용품	110	19.6	음식/숙박	388	-5.0
주류/담배	40	9.5	가사서비스	15	-6.3
의류/신발	169	-5.8	오락/문화	174	-21.0
통신장비	31	-8.8	교육	168	-29.4
합계	1,173	19.6	운송서비스	39	-33.9
합계(자동차/연료 제외)	895	13.2	합계	1,340	-9.8

자료 : 통계청 자료 재구성

■ 7월 누적 기준 품목별 소매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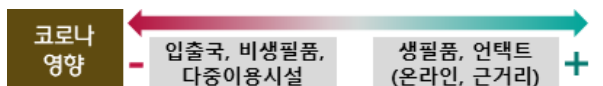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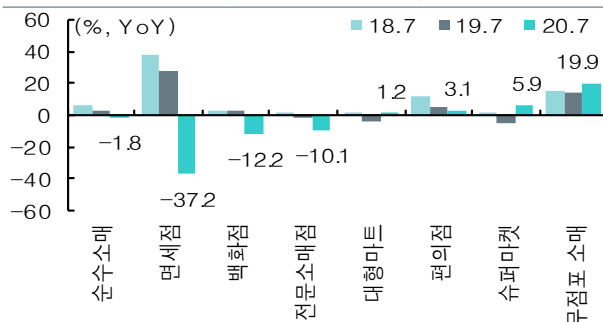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대표적인 언택트 채널인 온라인 쇼핑은 신규 고객층 유입 및 온라인 장보기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소매업과는 차별화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온라인 쇼핑이 주를 이루는 무점포 소매업은 '20년 7월 누적기준 19.9% 성장
- 온라인 쇼핑 중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음식서비스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온라인 장보기 확산 및 내식 수요 증가를 반영
 - 1분기 온라인 판매액 증감률(YoY) : 음식료 47%, 농축수산 62%, 음식서비스 77%

■ 소통, 매장, 배송, 유통 분야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반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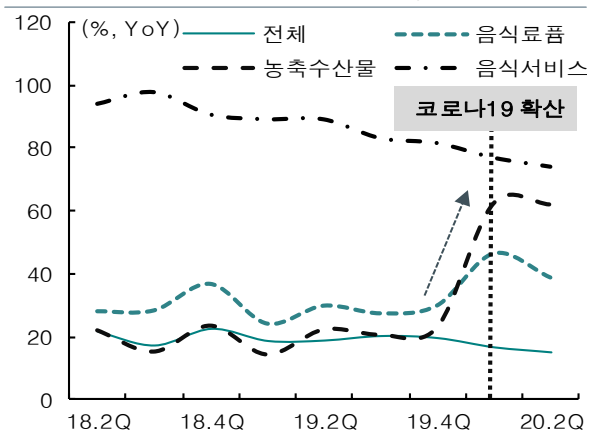
- 동영상과 상거래가 결합된 ‘미디어커머스’의 하나인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특징이며 비대면으로 위축된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
 - 온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확장을 꾀하는 플랫폼 업체의 참여도 확대

■ 코로나19 이후 유통 채널별 판매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음식료 관련 품목의 온라인 판매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언택트 시대의 소매 및 소비재 업체들의 변화

구분	트렌드	내용	사례
소통	라이브 커머스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 - 직접 대면 대신 온라인으로 고객과 소통 - 온·오프라인 유통 및 디지털플랫폼 등이 참여	- 오프라인 : 롯데백(100LIVE), 현대백(하트라이브) - 온라인 : 티몬(티몬 셀렉트), 위메프(원더쇼핑) - 디지털플랫폼 : 페이스북(페이스북샵), 유튜브(쇼핑 익스텐션)
매장	무인화 기술	-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 등 무인화 기술 발전 - 코로나19로 소비자 거부감 완화 - 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도입 중	- 카페, 반찬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등 단순한 상품 구성 및 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국내 도입 - 해외에서는 신석식품 위주의 무인점포도 존재 (미국 아마존고 그로서리, 중국 허마슈퍼 등)
배송	퀵커머스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수요 증가 - 로컬 물류(근거리 매장, 오토바이 배송 등) 기반 - 음식배달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사 등이 각각 라이더와 근거리 점포를 기반으로 진출	- 편의점 : GS25, CU 점포 인근 도보배달 서비스 - 배달 : 배달의 민족(B마트), 요기요(요마트) - 롯데 : 통합 온라인몰 '롯데 온'의 한시간 배송
유통	DTC (Direct To Consumer)	- 온라인몰 성장 하에서 직영물 기반 직접 거래로 유통사 수수료 절감 및 고객 데이터 축적 - 최근 식품업계 중심으로 직영물 성장 중 - 상품 차별성, 온라인몰 운영 노하우 필요	- 식품업체 직영물 : CJ제일제당(CJ더마켓), 대상(정원e샵), 동원F&B(동원몰) 등 - 나이키(미국)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에 철수하고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DTC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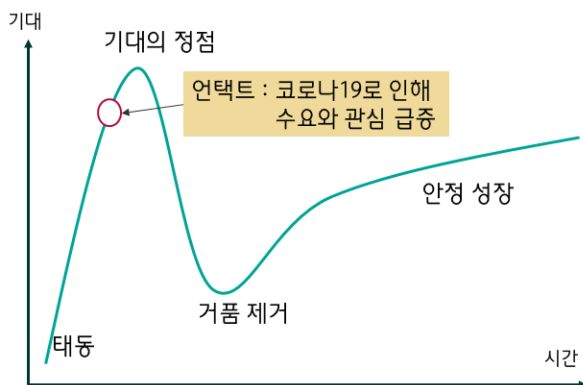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소통을 증가시키는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직원 대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인화 기술(키오스크, 무인 계산대 등)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무인화 기술의 발전과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소비자 인식 개선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점원 없이 운영 가능한 무인점포 또한 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도입 중
 - 해외 주요 온라인몰(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은 무인점포로 오프라인 확대
- 배송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지역 내 매장 및 근거리 물류에 활용하여 배송 시간을 30분~1시간 수준으로 단축한 ‘퀵커머스’가 주목받고 있음
 - 기존 음식 배달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심 물류 센터 또는 근거리 점포 상품을 오토바이 등 근거리 물류를 통해 배달하는 지역 단위의 상거래 형태
-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제조업체 직영몰을 통한 소비자 직접 거래(DTC)가 최근 수요가 증가한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자체 유통 채널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고 고객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언택트 확산 하에서 구조 변화 대응 및 충성도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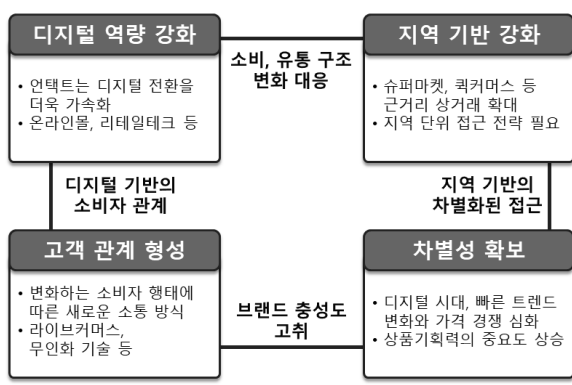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확산된 언택트 트렌드는 이후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코로나 시기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됨
 - 코로나 시기 언택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도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관련 업체들은 디지털과 지역 기반 강화로 소비, 유통 구조 변화(온라인, 근거리)에 대응하고 새로운 고객 관계 및 차별성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고취
- 비대면 상품 및 채널을 확대 중인 금융회사에서도 유통, 소비재 업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언택트 트렌드 대응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언택트 트렌드와 Hype 곡선



주 : 가트너의 Hype 곡선에 언택트 트렌드를 대입
 자료 : 가트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언택트 시대의 소매, 소비재 업체들의 대응 전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쟁 심화에 직면한 은행 결제 서비스 전략

조재범 연구원(bum123123@hanafn.com)

은행들은 결제 서비스업의 가파른 성장에도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인해 이익 창출에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결제 서비스업의 형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전통 은행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Mckinsey는 분할성장, 공동투자, PaaS, 아웃소싱 등 은행의 운영모델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 규제개혁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결제 서비스업이 변화를 겪고 있어 은행들의 운영모델 변화가 불가피하다.

■ 결제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도 은행은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이익 창출이 어려움^[1]

- 결제 서비스는 지난 12년간 금융 서비스 중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 19로 국가 간 결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결제 등은 빠르게 회복
 - 결제 부문의 총주주수익(total shareholder return)은 연평균 25% 성장률 기록
- 그러나 이자이익 등 전통적인 수입원이 압박 받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카드 부문의 손실 심화 등이 겹치면서 결제 서비스 성장이 정체
 - 비은행 결제업자와의 경쟁 심화로 결제 수수료를 통한 이익 창출이 어려움
- 결제 서비스는 인프라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규칙 변경 구현, 레거시 기술 개선 등 기술사용 비용이 높아 운영비가 수익의 3~40%를 차지하기도 함

■ 산업간 결합 등으로 결제 서비스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도 운영모델 변화가 시급


- 산업과 시장의 다양한 결합으로 수익구조, 규제, 국제 표준, 잠재적 규모 등이 변화되고, 은행도 오픈뱅킹 등 개혁 진전을 위한 규제 압력이 이어지는 추세
 -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하며, 이에 맞춘 투자 필요성도 증대
- 결제 서비스업은 고객 점점 확대를 위한 은행의 주요 서비스로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가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비용관리를 위한 운영모델 변화도 필요
 - 현재 은행들은 기존 업무 중심으로 지원 및 고객 경험 보호에 투자의 초점을 두고 있으나, 새로운 고객 경험과 상품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

[1] "A burning platform: Revamping bank operating models for payments", Mckinsey,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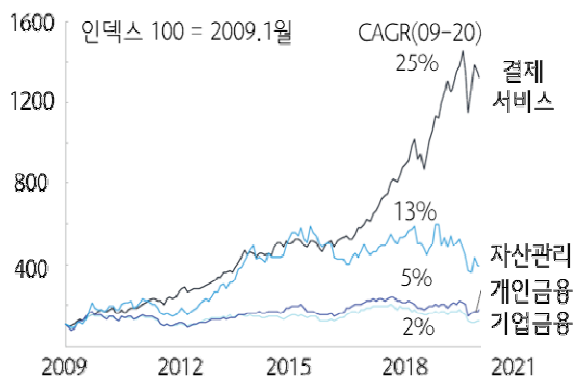
■ 은행의 결제 서비스 운영모델에는 분할성장, 공동투자, PaaS²⁾, 아웃소싱 등 존재

- (분할성장) 은행 내부 고객 규모가 작은 경우, 결제 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타 은행과 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넓은 고객군을 확보하여 수익성 개선
 - 英 RBS은 결제제공업체 Worldpay를 분할하여 결제 서비스의 독립적 가치를 창출
- (공동투자) 결제 솔루션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비용 절감, 핵심 기능 경쟁력 강화, 고객 기반 공유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타 기업보다 우위를 선점
 - 스웨덴 중앙은행과 6개 상업은행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P27을 공동개발
- (PaaS) 은행은 PaaS에 API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기술을 유지할 수 있어 혁신적 고객 경험 제공이 가능
 - 새로운 상품 출시 시간이 단축되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용 기반 수수료 책정 정책으로 인해 비용관리가 용이
- (아웃소싱) 결제 기술 전체에 대한 투자 없이도 아웃소싱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
 - 英 Transferwise는 구축이 어려운 국가 간 결제 서비스 등을 부분적 아웃소싱 제공

■ 국내 은행도 결제 서비스업 규제완화에 따라 결제 부문 운영 경쟁력 강화가 필요

-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결제사업자들이 도입될 예정이며, 빅테크 등 비은행 기업의 진출로 은행에 위기가 고조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시 IT기업의 금융결제망 참여 및 결제대행사업이 허용
- 국내 은행은 결제 업체에 대한 공동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IT기업에 PaaS, 아웃소싱 등을 통한 상생 전략 등 적극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 

■ 은행 서비스별 총주주수익(TSR) 성장 추이



자료 : McKinsey

■ 은행의 운영모델 변화 전략

운영모델	내용
분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에서 결제 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관리 · 타은행 고객까지 확보 가능하여 성장에 유리
공동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투자를 통한 공유 결제 시스템 구축 · 결제 서비스의 기본 기능에 대한 경쟁력 향상 · 타 은행과의 차별화 전략 사용은 어려움
Pa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aS 플랫폼에 API 제공을 통한 결제 서비스 구축 · 업데이트되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 · PaaS 파트너와 협력을 통한 차별화 서비스 제공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사에 위임 · 투자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자료 : McKinsey

[2] Payments-as-a-Service는 카드 발급, 결제 청구 등 결제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美 대선 앞, 희비 교차하는 엑슨모빌과 NextEra

오 유 진 연구위원(yujin.oh@hanafn.com)

10월 초 재생에너지 유틸리티인 NextEra가 시가총액에서 엑슨모빌을 제치고 美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등극했다. 이는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선 우세 전망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의 충격이 결합한 결과로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 화석연료 기업들의 대응전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재생에너지 유틸리티인 NextEra가 엑슨모빌을 제치고 美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등극^[1]

- 지난 10월 7일, 미국 재생에너지 유틸리티인 NextEra Energy의 시가총액이 1,45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형 석유업체인 엑슨모빌(1,420억 달러)을 넘어섬
- 엑슨모빌은 2013년까지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저유가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훼손
 -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은 '20년 초반 3,000억 달러에서 최근 절반 이상 증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92년 만에 퇴출당한 바 있음
- NextEra의 2019년 매출액은 184억 달러로 엑슨모빌(2,556억 달러)의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청정에너지 확대 트렌드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

■ NextEra Energy는 美 최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업체이자 배터리 저장 분야의 리더


- 2020년 상반기 기준, NextEra Energy가 운영중인 발전 규모는 약 55GW이며, 이중 풍력발전이 16GW, 태양광 5GW, 배터리 저장 160MW 등 차지
 - 나머지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28GW, 원자력 발전 6GW 등으로 구성
- 주로 자회사인 NextEra Energy Resources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12GW, 배터리 저장 2.2GW의 높은 개발 계약 잔고를 보유
-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최근 태양광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20MW급 파일럿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내 청정에너지 확산을 주도

[1] "NextEra Now More Valuable Than Exxon as Clean Power Eclipses Oil", Bloomberg, 20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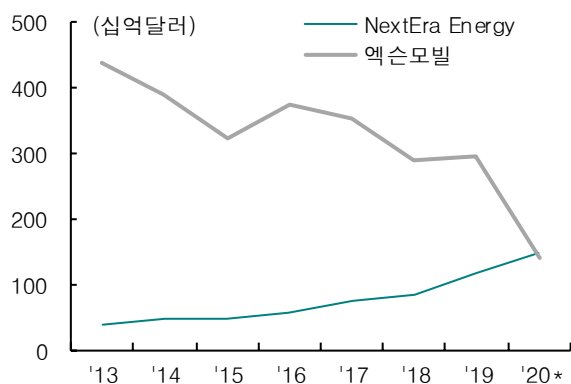
■ 바이든 후보의 우세 전망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세^[2]

-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고, 2050년까지 100% 클린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7.2~8.2)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자의 68%는 기후변화가 美 대선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반면 트럼프 지지자는 11%에 불과
-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바이든 후보의 우세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혜분야로 꼽히는 친환경 인프라 기업에 대한 관심 상승
- NextEra Energy외에도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
-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Invesco Solar ETF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

■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되는 청정에너지 기업의 성장과 화석연료 기업의 대응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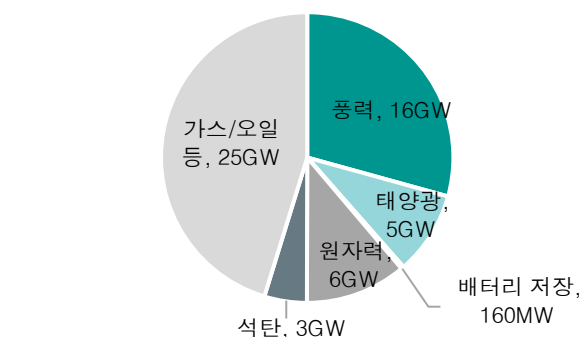
- NextEra Energy의 부상과 엑슨모빌의 약화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의 충격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국들의 녹색산업 지원 정책 및 태양광·풍력 발전비용 하락 등으로 향후 세계 청정에너지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한국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며, 정유 등 화석연료 업체의 에너지전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NextEra Energy와 엑슨모빌의 시가총액 변화



주 : 2020년은 10월 19일 기준
자료 : Bloomberg

■ NextEra Energy의 발전 포트폴리오



주 : 2020년 상반기, 자회사 합산 기준
자료 : NextEra Energy

[2] "Renewable-Energy Stocks Are Getting a Biden Bump", WSJ, 2020.10.11

금리: 수익률곡선 스티프닝을 우려한 2년물 발행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미국 국채 금리가 부양책 논의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대로 상승했다. 국내도 대외발 금리 상승압력이 부각되었으나 국고 2년물 발행 신설에 따른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압력 완화 기대로 장기금리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처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 채권시장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민주당 우위시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외발 금리 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미국 금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전망 속에 상승, 유로지역은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하락

- 연준 부의장은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민간이 소화하기에 과다한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 기능 정상화까지 연준이 자산 매입을 지속할 가능성 언급
- 호주 중앙은행은 3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제로금리와 10년물 등 장기채 매입 등의 추가 통화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
 - 총재는 재정 여력의 확충 필요성과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통화정책의 성장 견인 효과 확대 기대 등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언급
- 美 국채 10년 금리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 속에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0.8%대에 진입했으나 유로지역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 심화와 경제 봉쇄 조치로 금리 하락
 - 주요 국채 금리(%): 10.9일→10.22일: 美 0.78→0.87, 英 0.28→0.29, 獨 -0.52→-0.57


■ 국내 시중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

- 10월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9월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차익거래유인 감소도 배경이나 대규모 만기도래(9월 8.4조원)로 인한 롤오버 일단락에 주로 기인
 - 외국인 일평균 순매수(억원): '20.8월 2,079 → 9월 4,186 → 10.1~21일 2,045
-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한도)이 자원 조달을 위해 21일 기금채(3.5년, 2,400억 원)를 첫발행했으나 연말까지 발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수급 우려가 제한
- 국고채 금리는 예상보다 완화된 금통위 스탠스와 호주 중앙은행의 추가 통화정책 기대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美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하여 재반등
 - 국고 3/10년 금리(%): 0.93/1.55(10.12일) → 0.88/1.48(10.15일) → 0.93/1.51(10.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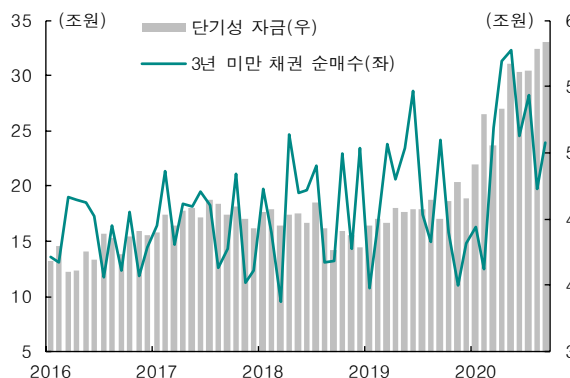
■ 기재부, 국고채 2년물 발행 신설 등이 포함된 국채시장 역량 강화 정책을 발표

- 기재부는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검토,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 PD 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국채시장 관련 대책을 발표
 -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은 만기 보유시 가산 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
- 국고 2년물 발행 신설은 대내외적으로 장기물 중심의 채권 약세 진행에 따른 수급 부담 해소 차원과 단기자금 확대 속 기관들의 단기채 수요 증가 등이 배경
 - 2년물 도입에 따른 여타 만기(3, 5, 10, 20, 30, 50년) 발행 비중 조절은 추후 발표
- 한편 공개시장운영을 위해 한은이 2년물 통안채를 발행하고 있어 시장 구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나 통안채 발행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던 상황
 - 통안채 2년물 발행 규모(조원, 월평균): '17년 6.2 → '19년 6.0 → '20.1-9월 5.9
- 다만 통안채와의 발행 조절로 국고 2년 발행 확대는 한계가 있고 대외발 금리 상승 위험도 높아 만기 분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압력 완화는 제한적일 소지

■ 美 대선(11/3일)에 대한 관망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외금리에 연동된 흐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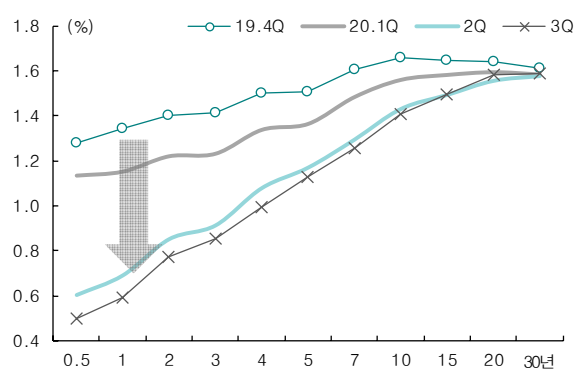
- 채권시장은 美 부양책 논의와 대선 결과에 연동된 흐름을 보이겠으며 특히 상하원 모두 민주당 우위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대로 올라설 것이라 관측 우세
- 시장금리가 8월 저점(국고3년 0.80%)을 확인한 상황에서 북클로징을 앞둔 기관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저가 매수세 유입도 쉽지 않아 금리 오버슈팅 가능성도 존재
-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 득표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대선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어 금리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도 주시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85~1.05%, 1.40%~1.65% 범위로 예상 

■ 단기자금 확대와 3년 미만 채권 순매수



주 : 단기성 자금=실세요구불+CD+CMA+발행어음+대고객RP+MMF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국고채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전개



주 : 기간 중 평균 기준
자료 : Bondweb

외환: 先반영된 Blue-wave, 원화 추가 강세는 제한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美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바이든 당의 기대가 확대되며, 금융시장에서는 Blue-wave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선반영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바이든 수혜 통화로 인식되는 멕시코 페소, 위안화, 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였다. 물론 원화와 위안화 강세의 배경에는 他국가 대비 양호한 경기여건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에 다가가면서 Blue-wave 선반영에 대한 인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대선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 급등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Blue-wave를 본격 반영한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급락한 원/달러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높아진 美 대선 Blue-wave(바이든 대통령 당선, 상원 민주당 차지) 가능성을 반영, 위안화 강세와 연동되어 공격적인 역외 숏플레이 나타나며 하락
 - 한편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실질실효환율은 유지되고 있으며, 과거보다 환율의 수출 영향력이 낮아져 최근의 환율하락이 불편하지 않다고 발언
- 10월에도 (+)의 무역흑자(~21일 \$4.6억)가 지속되고, 대규모 선박 수주 소식에 수급이 여유가 생기며 원/달러 환율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1,130원대로 하락
- 이후 당국 개입 추정 매수세 유입되며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후반으로 반등하였으나, 역외 매도세가 지속되며 1,135원 부근에서 등락을 지속


■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며 EM-Asia통화 강세

- 달러인덱스는 교착상태를 지속하는 부양책 협상 및 코로나 재확산 경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면서 92pt대로 하락
 - 21일,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과 48시간 내 부양책 합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시장은 대선 前부양책 합의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
- 유로화는 코로나 재확산, ECB의 유로화 강세 부담 발언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브렉시트에 대한 낙관 및 유럽 공동회복 기금 영구화 기대 등으로 반등
- 위안화는 美 대선의 Blue-wave 가능성을 반영하는 한편 中외환당국은 소극적인 위안화 강세 속도조절 의지를 보이며 달러당 6.65위안까지 하락(27개월래 최저)
 - 외환당국은 선물환 규제 완화, 적격 내국인 기관투자자(QDII)한도 확대를 통해 위안화 강세속도 조절 시그널을 내비치면서도 고시환율은 시장 수준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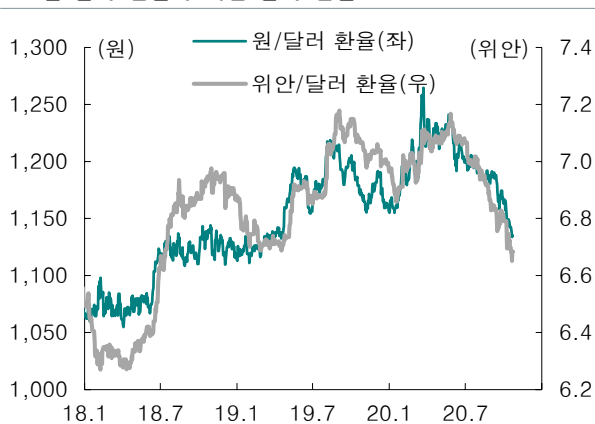
■ Blue-wave를 급하게 반영한 시장, 이제는 바이든이 당선 되지 않는 것이 리스크

- 최근 Blue-wave 가능성(대통령 바이든, 상하원 민주당)이 높아지며 재정적자 확대 및 대외 관계 개선 기대가 달려 약세, EM-Asia 통화 강세로 반영되고 있음
- 이전과 달리 바이든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바뀐(부양책 규모 확대, 예측가능성 등 시장 우호적 요인에 주목) 것과 더불어 시장이 Blue-wave를 기정사실화 한 듯 급격하게 반영하면서, 이제는 Blue-wave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리스크
- 現시점에서 美 대선과 관련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
 - ①바이든이 큰 표차로 당선, 상원 민주당: 정책공백기 우려 제거. 정책추진력 확보 및 부양책 규모 확대가 기대되나, 시장 선반영으로 추가 반영은 제한될 전망
 - ②바이든이 적은 표차로 당선, 상원 민주당: 트럼프의 이의제기 및 결과 지연 등 절차적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정책 공백기가 나타나며 연말 시장 변동성 확대
 - ③상원 공화당 수성: ▲바이든 당선 시 정책 추진력 제한 및 부양책 합의 지연 우려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당선시 부양책 규모가 매우 축소되고 미중 불확실성이 보다 고조되며 시장 흐름은 큰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최근 위안화와 원화 강세는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①의 경우(Blue-wave)를 강하게 반영한 플레이어들의 이벤트 베팅의 결과로 판단, 추가 강세는 제한될 전망

■ 美대선에 시장 초점이 지속되나, 바이든 트레이드에 따른 원/달러 추가 하락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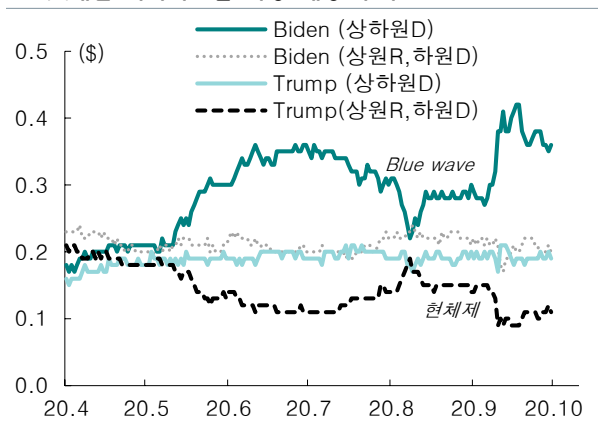
- 美대선 및 추가부양책에 여전히 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Blue-wave 선반영에 대한 인식으로 속도조절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 1,130~1,150원 등락 전망
 - 다만 11.3일 美대선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 유의 

■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 美대선 시나리오별 시장 예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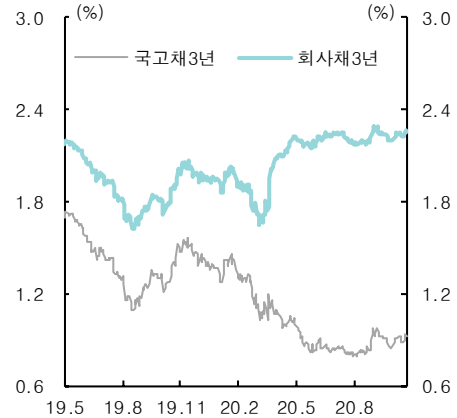


주: D는 민주당, R은 공화당을 의미
자료 : Predictit,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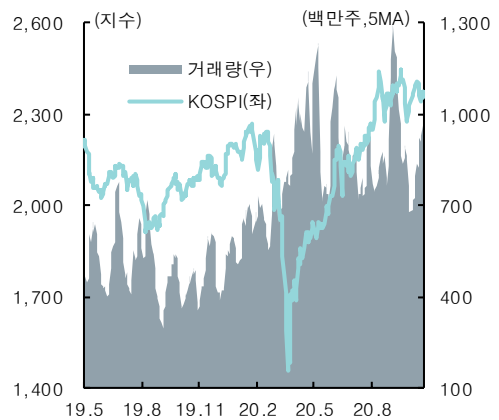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9월말	0.55	0.63	0.82	2.19	0.85	1.11
10월 16일	0.47	0.63	0.84	2.23	0.89	1.18
10월 19일	0.48	0.63	0.84	2.23	0.89	1.15
10월 20일	0.49	0.63	0.85	2.24	0.91	1.17
10월 21일	0.52	0.63	0.85	2.26	0.93	1.22
10월 22일	0.53	0.63	0.85	2.25	0.93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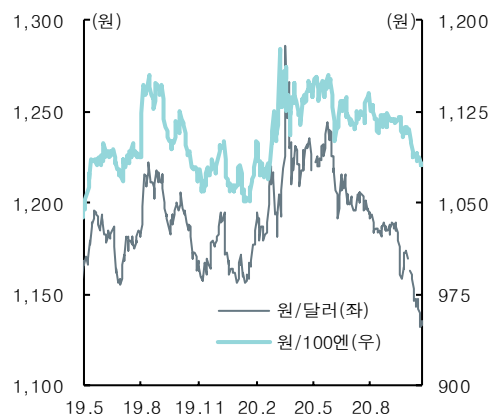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9월말	2,327.9	94,871	646	-712
10월 16일	2,341.5	111,415	920	-1,713
10월 19일	2,346.7	104,907	932	377
10월 20일	2,358.4	118,335	874	431
10월 21일	2,370.9	98,641	813	-239
10월 22일	2,355.1	97,750	816	-738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9월말	1,169.5	1,108.5	172.2	1,370.5
10월 16일	1,142.0	1,088.0	171.3	1,344.6
10월 19일	1,139.4	1,082.9	170.9	1,344.0
10월 20일	1,131.9	1,080.0	170.7	1,346.9
10월 21일	1,132.9	1,082.1	170.2	1,342.6
10월 22일	1,135.0	1,080.2	169.4	1,3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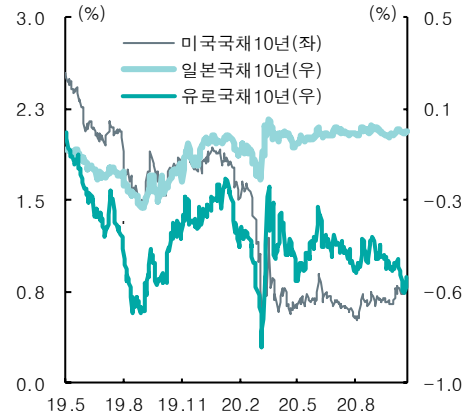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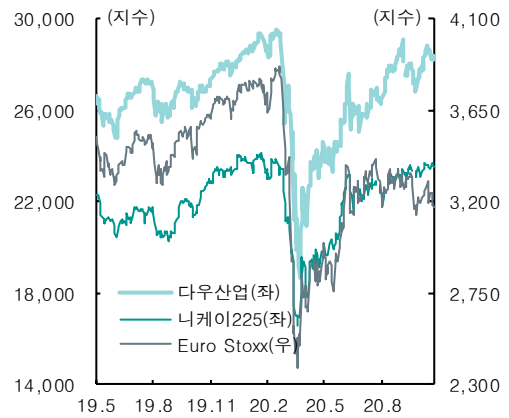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9월말	0.09	0.23	0.13	0.68	0.02	-0.52
10월 16일	0.09	0.22	0.14	0.75	0.02	-0.62
10월 19일	0.09	0.21	0.15	0.77	0.03	-0.63
10월 20일	0.09	0.22	0.14	0.79	0.02	-0.61
10월 21일	0.09	0.21	0.15	0.82	0.04	-0.59
10월 22일	0.09	0.21	0.15	0.86	0.04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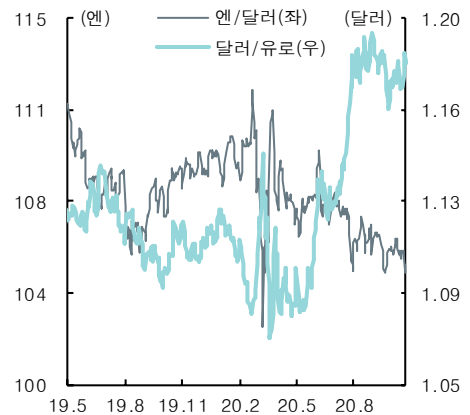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9월말	27,781.7	23,185.1	3,218.1	3,193.6
10월 16일	28,606.3	23,410.6	3,336.4	3,245.5
10월 19일	28,195.4	23,671.1	3,312.7	3,242.5
10월 20일	28,308.8	23,567.0	3,328.1	3,227.9
10월 21일	28,210.8	23,639.5	3,325.0	3,180.7
10월 22일	28,363.7	23,474.3	3,312.5	3,171.4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9월말	105.44	1.172	40.4	1,895.5
10월 16일	105.38	1.172	41.9	1,906.4
10월 19일	105.43	1.177	41.8	1,911.7
10월 20일	105.49	1.182	41.6	1,915.4
10월 21일	104.59	1.186	41.7	1,929.5
10월 22일	104.87	1.182	41.4	1,904.6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10월 24일 인쇄

2020년 10월 26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2호

0732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Tel 2002-2200 Fax 2002-2610